

회개한 엘마

엘마는 간악한 노아 왕의 제사였어요. 그는 선지자 아빈아다이가 계명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. 엘마는 악한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그는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을 기록했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. 나중에 가족이 생기자 그는 한 아들에게 엘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.



저는 골키퍼를 맡아서 공을 아주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제 나쁜 말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회개를 해야겠는데, 하필 축구를 하는 중인 거예요. 그때

뭔가가 떠올랐어요. 필요하면 어디서라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! 기도를 하고 나니, 회개를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.

피터 지, 8세, 미국 유타



데이먼 비, 8세, 미국 유타

성화, 제임스 베스트랜드



이 도전 카드를 잘라서 접은 뒤 보관하세요!



나는 회개할 수 있어요!

- 모사이아서 18장 9절을 외운다.
-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가 한 말씀을 쓰거나 그린다.
-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한 가지 고른다. 이번 달에 그렇게 실천해 본다.
-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.
